

6층 오르내리며 신나는 '사운드 투어'



반도네오니스트 '김국주'



카페뮤지엄 CM이 오는 3월 1일 제1회 'CM 사운드 페스티벌'을 펼친다. 작년 부드러운직선 무대에서 공연하는 '투파이브'.

총 6층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오르내리며 즐기는 독특한 '투어형 독립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목이 집중된다.

스탠딩 존으로 꾸러진 1층은 뮤지션 가까이서 강렬한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고, 미술관에 방석을 깔고 관람하는 2층 무대도 조성된다. 6층으로 걸음을 옮기면 '푸드 존'과 '뮤지션 MD 공간'이 마련돼 굿즈 구매도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CM 사운드 페스티벌'에서다.

카페뮤지엄 CM이 'CM 사운드 페스티벌'을 오는 3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CM에서 펼친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핑크밴드 '투파이브', '김국주트리오'부터 수도권을 벗어나 처음 공연하는 '회기분농'까지. 다양각색 아티스트들이 '팔색조 개성'을 보여주는 자리다.

먼저 오후 1시부터 밴드 '투파이브'가 출연해 관객을 만난다.

광주 인디신에서 십년 이상 활동하며 잔뼈를 키워 온 '투파이브'는 목포공고 밴드부(레드스카이) 출신 보컬리스트 권선제(33·대표)를 주축으로 기타리스트 정찬영(25), 드러머 양지연(여·24)이 함께하는 3인조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김국주 트리오'가 무대에 선다. 반도네오와 탱고 매력에 빠져 아르헨티나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광주에서 유일한 반도네오 연주자로 알려져 왔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소울메이트 김창현,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라다미와 협연할 예정이다.

카페뮤지엄 'CM 사운드 페스티벌' 3월 1일 낮 12시~오후 8시40분 '투파이브' '김국주트리오' 등 다양각색 아티스트들 매력 만끽

김 씨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음악과 자작곡, 가요를 '탱고 버전'으로 편곡한 연주곡(가사 없는)을 들려드리려 한다"며 "지역 예술가와 함께 이색적인 기획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 에너지 있는 무대를 통해 빨리 관객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무대에 처음 출연하는 '회기분농'도 개성 있는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펑크, 재즈, 락 등 다양한 사운드에 메시지를 싣는 이들은 김성준, 도경휘, 성시온, 정환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다.(오후 3시 공연)

무대에서는 미공개 곡을 포함, 작년 발매한 앨범 수록곡을 들려준다. '타조', '바다거북스프', 'Panic sign', '나그네쥐', '소나기' 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4시 시팅 존(2층)은 '바다프로젝트' 선율로 채워진다. 이들은 임용, 김영훈, 김현무로 구성됐으며 길바닥과 시장 등 소를 불문하고 음악 하나로 소통해 온 '로드 아티스트'다.

이어 '고니밴드'는 오후 5시 1층 스탠딩 존 무대를 장식한다. 최근 EP 앨범 '고사동238'을 발매한

뒤 공연, 음반, 방송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그룹 사운드로, '고사동 238' 수록곡으로 흥을 돋울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연주 외에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탐구해 온 'NS 재즈 밴드'가 출연한다. 이들은 최근 지역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에서 영화 OST를 연주했으며, 아시아 컬처마켓이나 프리제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오후 7시 20분 만날 수 있는 '서울전자음악단'도 2005년 데뷔 이래 꾸준히 활동해 온 베테랑이다. 신운철(기타), 강대희(드럼), 김엘리사(베이스), 혼님(기타)으로 이뤄졌으며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 (Ghost Writers) 부문에서 수상. 2007년 1집 '우리는 깨닫다'로 데뷔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또한 오후 8시 40분 스탠딩석을 열기로 물들었다. 조용(기타·보컬), 유주현(드럼), 이기하(베이스), 이지향·안홍인(퍼커션)으로 구성된 이들은 '불발', '일몰', '꼬여버린 나의 인생' 등 작품을 선보여 왔다.

CM 사군 음악감독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운드 페스티벌'에 로컬 아티스트는 물론 전국에서 주목받는 예술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며 "팀별로 다양한 음악 장르, 예술적 감각을 발산하는 이번 음악 축제에 지역 음악 팬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하 1층과 3~5층은 출입이 제한되며 모든 좌석은 비자정석으로 운영된다. 티켓 5만5000원(현매 6만5000원), 네이버 예매. /최류민 기자 rubi@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40년만에 보수

국가유산수리기술휘, 조건부 가결...불단 뒤 벽화 해체 예정



600년 역사를 간직해 온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사진>'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수리기술휘원회는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무위사 극락보전의 해체·보수 안전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사찰 건물이다.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대인 1430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남아있는 무위사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유산으로 평가받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이면서 부재 곳곳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태원 연구원은 "2021년 중점관리 대상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극락보전은 구조 안전 점검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등급'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연구진은 지붕부의 하중 불균형으로 인한 손상을 우려하며 주요 부재와 벽체 균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2022년부터 극락보전 건물 전체를 해체해 보수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연구하는 한편, 단계별 해체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무위사 극락보전을 해체해 수리하는 건 40여년 만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술지 '문화재'(현재 명칭은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제53권 제2호에 실린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벽체 수리 기록과 시기별 시공기술 고찰' 논문에 따르면 극락보전은 1935년과 1956년, 1982~1983년에 각각 해체 수리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극락보전은 전체 해체해 보수하고, (극락보전 내) 벽화는 해체하고 옮겨 보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현재 극락보전 안에는 불단 후불벽화가 남아있다. 불상 뒤에 놓인 후불벽 앞면에는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가, 뒷면에는 보물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가 그려져 있는데 모두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국가유산수리기술휘원회 측은 "후불벽화 해체 순서와 관련해 기술지도단 등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한다는 점을 시방서에 명기하고 진행"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성평등 인식' 담은 그녀들의 이야기

광주여성가족재단, 3월 18일까지 '허스토리 기획전' 공모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여 '허스토리 기획전'은 동시대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성평등 예술의 전망을 보여주는 전시다. 그동안 김보라, 강부연, 양나희 등 지역 기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올해로 8회차를 맞았다.

재단이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 중 여성전시관 HERSTORY(광주시민회관 1층)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전시 등을 무상 지원받는다.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디자인 등 시각예술 분야에 걸쳐 총 3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총 1350만 원 상당의 장·제작비(허스토리상 550만원, 최우수상 450만원, 우수상 350만원)를 지원하며 이메일 신청. 참가 자격은 지역(광주광역시)을 기반

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한정한다. 성평등·여성주의·가족 관련 기획은 심사 시 우대하며 전시 기획의 구체성, 적절성, 예술적 역량 및 성평등 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시상금을 활용해 전시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시 작품 제작 및 설치·공간조성·보험·유지보수 등 전시 운영에 대한 제한 사항은 선정팀에서 진행한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성평등 담론과 예술적 통찰, 전망을 보여주는 전시를 발굴하는 '허스토리 기획전'을 올해도 마련했다"며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3팀을 선정해 독창적인 전시를 펼쳐온 전시가 올해 청사 이전과 맞물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 문화예술 기획자-작가 대화의 시간

광주비엔날레, 갤러리 김넷과 등 6곳서 월례회

기획자와 작가는 예술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고 가치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관계다.

광주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외에도 다채로운 이력과 예술적 심미안을 겸비한 작가와 예술

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자와 작가와의 만남인 '월례회'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는 교육 프로그램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 기획자-작가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지난 11일~20일 기간 갤러리 김넷과를 비롯해 드림미술관, 뽕뽕브릿지,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스페이스 DDF에서 모두 6회 대화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월례회는 지금까지 작가의 작업실(스튜디오)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작가 연구 프로그램 '작가 스튜디오탐방'과 광주비엔날레의 예술적 가치를 전시와 연계 한 강연 'GB 토크(GB Talk)'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